

#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코인의 봄' 오나

### 증권거래위, 블랙록 등 11개 거래 승인... 투자 자산 인정 부정적이던 직장인·주부 관심... 전문가 "투자 신중해야"

직장인 김인영(33)씨는 11일 휴대전화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설치했다. 자신을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는 김씨는 이날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코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다.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애써 무시했다"며 "그런데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과거에 실체가 없던 부정해왔지만 코인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했으나 카페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공부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실체가 없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섰던 시민들이 많았는데, ETF 승인을 계기로 가상화폐 투자에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다.

특히 주식, 채권, 펀드, 적금 등 다양한 투자자를 가지고 있지만 가상화폐만큼은 투자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이른바 '보수'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는 모양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거래 컨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비교

현물 ETF	구조	선물 ETF
비트코인 직접보유	구조	비트코인 선물계약
단순명료	운용 방식 복잡성	만기 롤오버 등 관리 복잡
비교적 적음	비트코인과 시세 차이	비교적 큼
2024년 1월	미국 상장	2021년 10월
회계규정·규제에 맞춘 기관투자자 매입 용이	기타	거래 첫날 역대 ETF 거래액 2위 기록

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게 됐다.

상장 예정인 상품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퇴직 공무원 김선미(여·63)씨도 남편을 설득해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이다. 김씨는 퇴직 후에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남편의 만류에 투자 계획을 접은 바 있다.

김씨의 남편은 가상화폐에 대해 '사기'와 같으며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ETF 승인 결정이 난 데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어 남편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처음 투자하려고 했을 때가 비트코인 1개 당 3000만원 후반대였는데, 그때 사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며 "최근 만기된 적금에도 종잣돈을 합해 크게 투자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와 예금 금리 등이 좋지 않은 것도 가상화폐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달 평균 4%가량이었다던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7% 가까이 올랐다. 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만 1개 당 400달러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시세가 불안정한 데다 예측이 어려워 투자 시에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가장 분산화되고 있고 발행 규모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6분기 연속 기준치 미달

### 소비심리 위축·가계부담 등 영향

올 1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81'로 조사돼,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지역 업체들은 올해 또한 경기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의는 명절과 신학기 등 호재요인에도 불

구하고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가계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어 업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그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경영상태별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광고비 삭감 등 요인으로 비용항목(139)은 전망이 좋았으나, 매출(80)과 수익(81) 항목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고용항목은 무인 자동화기기 도입 확대, 영업시간 조정 등으로 73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각각 전망지수가 '100'으로 비교적 낙관적이었으나, 편의점(58)과 슈퍼마켓(72)은 전망이 어두웠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올해 역점 경영전략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비용 절감(4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온라인채널 강화(34.0%),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 강화(25.5%), 오프라인 채널 강화(14.9%), PB 등 차별화 상품개발(14.9%), 배송경쟁력 강화(8.5%), ESG 경영강화(2.1%)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여수시지부, 5000만원 상당 사랑의 쌀 기부



농협 여수시지부(지부장 권용대)는 11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사랑의 쌀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권용대 지부장, 정기명 시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농협의 공익적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여수시지부는 여수시에 5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10kg·

1700포)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관내 저소득 620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항상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여수시도 농협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어촌공, 농지은행 사업비 1조8091억 '역대 최대'

### 전년 대비 3455억원·23.6%↑

### 단계별 농업인 지원 혜택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로 역대 최대규모인 1조809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는 1조80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5억원(23.6%) 증가했다.

사업별 편성 예산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1조240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 ▲과원규모화사업(270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264억원)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60억원) 등이다.

이 중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예산은 전년(8578억원) 대비 3831억원(44.6%)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농 수요 맞춤형 사업도 올해 대폭 확대됐다. 청년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추진된 선임대 후매도 사업은 (82억→17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 외에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 사업(54억→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60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됐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264억 규모의 농지 이양은퇴 직불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

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한전KPS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KPS는 종합 98.06점을 받아 전체 평균(87.4점) 뿐만 아니라 동일 평가군인 중앙 공기업군(93.87점)을 크게 상회하며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특히 한전KPS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4개 평가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종합 등급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전KPS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적극적인 수요분석 및 분석 결과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